

唯物論과 質的 生活 (完)

文君의 反駁에 答함

金永義

宗教는 階級을 打破하고 모든 人類의 生活을 平等化, 民衆化 하려 한다. 民族主義, 資本主義로 생기는 支配, 彼支配의 階級을 업시 하려고 基督教은 主張, 實行하여왔다.

歐洲, 米國에 잇서 基督教가 엇더한 民衆的 活動을 하고 잇는지 文君은 엇지해 忘却하는가? 勞動階級의 生活 改善, 生産制度의 人格尊重化, 弱少民族의 自由를 爲하여 基督教는 熱烈한 爭鬪를 하여오지 안헛나? 宗教는 썰조아[부르조아] 階級이 末紀에서 分水嶺을 넘어잇음을 否認하지 안는다. 썰조아 階級의 支配도 쫓날 날이 잇을 것이다. 그러나 그 階級이 업서진다고 宗教가 업서질 것이 아니다. 文君은 왜 基督教를 썰조아 階級과 同一視하는가? 基督教는 生活 過程에 잇는 階級을 勿論하고 삶 의 삶에 根據하여 잇다. 宗教는 사랑과 가티 威力的 意志다. 階級이 다르다고 사랑이 잇고 업느냐? 썰조아 階級이 支配力을 일른다고 사랑의 가슴에서 사랑의 힘을 빼아슬 수 잇스랴? 이 質的 生活이 어느 量的 生活制度에 짜라 업서질 마냐? 차라리 宗教는 모든 階級을 通하고 生産制度를 지나 사람다운 삶 의 힘을 주는 바에야 엇지 썰조아 階級이 支配力을 일른다고 宗教가 消滅될 것인가? 목은 生活關係와 制度는 解體되여도 宗教는 解體될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宗教는 表現 하엿다 發展되는 制度나 思想보다 더 本體的, 根本的이다.

文君, 筆者는 君의 論文을 우리 民衆 生活 民衆의 貧乏에서 나는 부르지즘으로 봅니다. 殺風景인 經濟的 生活, 마음의 安定을 못 주는 貧乏의 苦痛을 밧는 우리로서 모든 制度의 革新을 부르짓게 되는 것이지요. 筆者는 革新運動 그것을 非難함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한 生産制度에 不平不滿을 가졌다고 無合理的 世界觀을 가질 必要가 업다고 합니다. 우리의 量的 生活을 滿足히 하지 못하는 까닭에 反動하는 마음으로 質的 生活을 根本부터 無視할 理由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民衆은 貧乏에서 읍니다. 絶望, 悲觀이 가슴

깊히 찾습니다. 文君 亦是 이 苦痛을 덜기 爲하여 努力하는 곳에서 그러한 論文을 쓰섯것지요? 그러나 基督教 亦是 그러한 努力을 하는 것이 첫 義務 입니다. 萬若 基督教人이 이러한 活動을 게을리하거든 그것을 非難하십시오. 다만 宗教 自體의 質的 生活까지 是 拒絕하지 말 것입니다. 筆者의 觀察에는 朝鮮의 唯一 活路는 참 宗教에서 나오는 實行하는 理性的 態度입니다. 基督教 自體를 非難 말고 이러한 기운찬 力的 生活을 하라고 勸할 것입니다. 徹底한 民衆運動, 生産制度의 革新도 이러한 理性的 態度가 업시는 不可能입니다. 文君과 筆者부터 이러한 宗教的 態度, 民衆을 爲하여 모든 것을 提供하는 理性的 態度를 가져 보십시다. 이러한 態度야말로 사람의 압힘을 가치 經 論하는 神과 調和하는 認識에서 쓰거운 生的 氣運을 어들 것입니다.(끝)